

GROVERSE NEWS

2025.4.24(목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[주요 내용]

- 한미 통상협약
 - 한국 한미통상협약에서 자동차관세 신속한 해법 모색 (Reuters)
 -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 임할 것 ”
- 미국 관세 조치
 - 미국의 반도체 관세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? (FT)
 - 세계 석권한 뿔티 트럼프 관세 직격탄 위기 (도쿄)
- 대선관련
 -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 드리워진 윤전대통령의 그림자 (Straits Times)
 - 팩트체크 쿨드플레이는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(AFP)
- 한중 해양협력대화
 - 한국한중해양협력대화서 中 서해구조물 논의 예정 (Reuters/요미우리)
- 안보
 - IAEA 사무총장 “북핵, 국제사회 감시 밖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” (WT)
 - 일본의 ‘하나의 전구’ 구상, 북한 위협 간과할 위험 (NK News)
 - 커트 캠벨 미국, 중국에 홀로 대응 불가... 한·일 등 과동맹 강화해야” (UPI)
- 방산
 - 폴란드가 잠수함 성능 개선을 위해 한국에도움을 요청하는 이유 (NI 기고)
 - 러 칼리닌그라드 공군기지와 가까운 지정학적 특성으로 잠수함 전력 현대화 절실
- 한일관계
 - 쓰시마고려불상, 내달 10일 반환 조율... 도난된지 12년 반만 (교도)
- 기업
 - 현대제철 대미 투자 계획에 투자자 반발... 시험대 오른 한국의 관세 전략 (Reuters)
 - 수년간 실종된 아시아 채권 발행, 한화퓨처 달러채 발행으로 물꼬 (Bloomberg)
 - 검찰,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의 의혹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 (Bloomberg/Reuters)
 - SK하이닉스, 무역·AI 우려에 공매도 급증 (Bloomberg)
- 사회
 - 日 법원 해산 명령 후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서 행복과 사랑 (AFP)
 - 경찰 “층간소음 분쟁, 아파트 방화 원인으로 추정” (SCMP)

한미 통상협약

<Reuters 4.23 서울발> 한국한미 통상협약에서 자동차 관세 신속한 해법

모색 (Joyce Lee & Hyunjoo Jin)

-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 전, “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”고 밝힘
- 현재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%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, 안 장관은 자동차 관세 문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해결할 방침임을 강조
- 방위비 분담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안 장관은 미국 측이 거론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
- 이와 관련,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통상 협상 패키지에 포함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

미국 관세 조치

<FT 4.23> 미국의 반도체 관세,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? (Chris Miller)

-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, 기업들은 상승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신 전체 공정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음
- 이러한 완제품에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겠지만, 적어도 제조 비용은 절감될 것
- 한편, 현재 대만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양과 품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없음.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음
-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중이며, 반도체 자급 자족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만 달성할 수 있음
- 따라서 반도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

<도쿄신문 4.24 서울발> 세계 석권한 ‘K-뷰티’, 트럼프 관세 직격탄 위기

- K팝과 드라마에 이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‘K-뷰티’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위기
-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 무관세였던 화장품에 관세 25%가 일부 적용된 상황. LG생활건강은 “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”이라고 언급
- 한편, 한 화장품업계 경영자는 “화장품 산업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핵심인데,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체포로 한국의 긍정적 인상이 손될까 우려된다”고 지적

대선 관련

<Straits Times 4.23 서울발>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 드리워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 (Wendy Teo)

-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내부 분열로 심각한 혼란을 겪는 중
- 당내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은 강성 지지층 활용을 노리고 있으나, 다른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중도층 유권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음
- 네 명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는 친윤계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,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모두 이름을 올림
- 김한나 서강대 부교수는 “네 후보의 입장 차는 당내 분열을 반영한다”며 “다수 후보가 경선에 나선 것 자체가 당이 결속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”이라고 설명
-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으며, 이 후보는 각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중

<AFP 4.23> [팩트체크] 콜드플레이는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(Shim Kyu-Seok)

- 콜드플레이의 서울 콘서트에서 크리스 마틴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. 다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삭제됨
- 마틴은 “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. 내가 한 명 추천한다”며, 실제로는 드러머 월을 언급했지만, 조작 영상 자막에는 “바로 나경원”이라 표시
-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패러디로 간주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음

한중 해양협력대화

<Reuters 4.23 서울발> 한국한중 해양협력대화서 中 서해 구조물 논의 예정 (Joyce Lee & Hyunsu Yim)

-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 문제를 중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
-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, 정부가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한 실효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
- 조 장관은 현재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구조물 관련 기술적 사안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

* <요미우리> 중국 서해상 잠정수역에 구조물, 한국 대항조치 검토

<WT 4.23 서울발> IAEA 사무총장 “북핵, 국제사회 감시 밖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” (Mike Glenn)

-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사무총장 북한 핵 프로그램이 국제적 감시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경고
- 그로시 사무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, 북한의 핵 야망이 영변 핵단지나 평양 인근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강조
- 또한 “이는 매우 중요하고, 야심 차며, 다차원적인 핵 프로그램으로, 어떠한 핵 안전이나 보안 감시 기준도 없다”며 “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경고

<NK News 4.23> 일본의 ‘하나의 전구’ 구상, 북한 위협 간과할 위험 (Shreyas Reddy)

-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‘하나의 전구(one-theater)’는 동중국해·남중국해·한반도를 하나의 통합작전구역으로 묶는 것으로, 이를 위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
- 이는 미국이 강조해 온 중국 견제 기조와 일치. 그러나 지역,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북핵·미사일에 대한 미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
- 한국은 이 같은 전략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, 미국이 동북아에서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자국이 안보 협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
- 양육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구상을 “급진적인 발상”이라 평가하며, “미국이 원하던 그림일 수 있다. 양국 간 비공식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

<UPI 4.23 서울발>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“미국, 중국에 홀로 대응 불가” (Thomas Maresca)

-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중국이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
- 캠벨 전 부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‘아산 플래넘 2025’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발언
-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‘미국 우선주의’ 외교 정책은 중국에 맞서는 상황에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혼자서 맞설 수 없다고 경고
-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특히 조선업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

방산

<National Interest 4.23> 폴란드가 잠수함 성능 개선을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 (Peter Suciú 군사 전문가)

- 폴란드가 한국의 한화오션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, 이 계약에는 폴란드 조선소 투자와 잠수함 3척 건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
- 폴란드는 흑해 및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공군기지와 가까운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
- 폴란드는 기존의 조선소를 확대하고 잠수함 3척을 인도받을 예정. 잠수함은 한국 해군용인 KSS-III(도산안창호급) 배치-II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잠수함
- 이 잠수함들은 통신 케이블, 전력선,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발트해 해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

한일 관계

<교도통신 4.23 나가사키발> 쓰시마 고려불상, 내달 10일 반환 조율...도난된지 12년 반만

- **2012** 년 10월 쓰시마시 간논지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 관세음보살좌상이 내달 10일 일본 측에 인도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
- 이는 재판을 통해 간논지의 불상 소유권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, 올해 1월 서류상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 관계자들은 물리적 반환 시기와 수단을 협의해 왔음
- 도난 후 약 12년 반 동안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온 문제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불상은 간논지로 반환된 뒤 쓰시마 시립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될 예정

기업

<Reuters 4.23 서울발> 현대제철 6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에 투자자 반발... 시험대 오른 한국의 관세 전략 (Heekyong Yang, Hyunjoo Jin)

- 현대제철이 지난달 말 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, 주가가 **21%** 넘게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짐
- 투자 계획의 세부 자금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회사 측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을 열어 차입(50%) 및 지분투자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

- 일부 투자자, 무역 전문가, 근로자들은 이 계획이 실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질적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
-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현대가 정부와 협조해서 해당 투자를 향후 정부의 더 큰 패키지 제안의 일부로 사용했다면,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지적

<Bloomberg 4.23> 수년간 실종된 아시아 채권 발행, 한화퓨처 달러채 발행으로 물꼬 (Ameya Karve)

- 한화퓨처프루프가 23일 달러채를 발행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**2023년 1월 이후** 지속된 달러채 발행 공백을 해소
- 이번 달러채 발행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달러채 발행자들이 발행을 연기한 이후 이 지역 차입자들이 시장으로 천천히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음
- < 블룸버그 >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,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달러채 발행량은 이달 66억 달러로 급감. 이는 35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달과 비교되는 수치

<Bloomberg 4.23> 검찰,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의혹 관련해 사무실 압수 수색 (Heesu Lee)

- 검찰은 23일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의 집을 압수수색. 이는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
 - 검찰은 이 사건에 관여한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의 본사도 압수수색
 - 지난해 금감원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한 것은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다며 위법 행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
- * <Reuters> 검찰,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수사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

<Bloomberg 4.23> SK하이닉스, 무역·AI 우려에 공매도 급증 (Youkyung Lee & Charlotte Yang)

- 이달 SK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가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예정반도체 제조사에는 최악의 시기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
-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(AI)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요를 둘러싼 기대감으로 지난 2년간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
- 올해는 관세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저비용 모델인 딥시크의 혁신 이후 AI 관련주에 대한 재평가로 주가가 소폭 하락

<AFP 4.23 가평발> 日 법원 해산 명령 후 통일교 합동결혼식 (Claire Lee)

-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(옛 통일교)은 광신도 집단으로 불리며 헌금 강요로 비판을 받아 일본에서 법적으로 해산됐음
- 그러나 이번 달 한국의 가평에서 수십 개국 통일교 신도 1,300쌍이 총재의 주례로 합동결혼식에서 부부의 연을 맺음

<SCMP 4.23> 경찰 “층간소음 분쟁, 아파트 방화 원인으로 추정”

- 한국 경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을 조사 중. 이 화재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61세 남성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
- 국내 언론은 층간소음 분쟁이 방화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.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 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